

'문화재보호' 최우선 선택

고속철 경주노선 '화천리' 결정 안팎

4년여에 걸친 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 노선논쟁이 건교부가 화천리노선으로 선회하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화천리노선이 급부상한 배경은 영남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분포 수가 방내리 35개, 안심리 26개, 덕천리 25개에 비해 화천리는 10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는 주요하게 작용했다.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양수길)은 지난 18일 경주노선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백지화추진위는 경주통과 반대 지식인 77인 선언을 이끌어냈으며, 지난 3월에는 17만명의 서명부를 첨부해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한국고고학회 임효재회장(서울대학교수·고고학)은 "경주경마장 건설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며 "원경주 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도 "당초 93년 6월 문화재위원회 회를 통해 제출한 문체부안과 동일한 노

◇ 화천리 노선과 3개노선 비교평가

구분	화천리	방내리	안심리	덕천리
역사경관 문화재보호	-남산경관 보호 다소 양호 -문화재 최소 (10개)	-원쪽과 같음 -문화재 가장 많음 (35개)	-남산경관 보호 다소 양호 -문화재 중간 수준 (26개)	-남산경관 보호 불량 -문화재 중간 수준 (25개)
고속철도 사업비	-최소 (2조847억원)	-최대 (2조2,683억원)	-중간 (2조1,369억원)	-중간 (2조1,231억원)
교통연계성	-도로망 연계 양호 -기존철도 이설 용이	-원쪽과 같음 -기존철도 이설 연장이 길	-원쪽과 같음 -기존철도 이설 선형이 다소 우호	-원쪽과 같음 -기존철도 이설 용이



원칙을 제시하면서 가닥이 잡혔다. 건교부의 이번 제안은 문화재보호를 최대한 배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비록 많은 재원과 시간을 낭비했지만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날개 가진 천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가시화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앞두고 문화재보존에 대한 인식을 크게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발정책에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성운 기자

건설비 덜들어... 지역주민도 환영 "불교문화 寶庫 남산 성역화해야"

각 노선별 문화재분포와 사업비 교통연계성을 비교하고 화천리노선이 △남산경관 보호와 문화재 최소 △고속철도 사업비 최소 △교통연계성 용이 등의 이유를 들었다.

선'이라며 "현재까지 검토된 여러 노선중에서 가장 좋은 노선"이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경주와 포항시민들도 대체로 화천리노선을 받아들이고 있다. 경주상공회의소 김동섭사무국장은 "고속철도의 경주노선과 역사가 어디에 설치되든 상관없이 경주시민들은 경주에 오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빨리 결정돼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천리노선에 대해 불교계와 고고학회는 반기고 있다.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추진위 사무국장 김형규씨는 "문화재 파괴의 최소화화 남산경관보호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또 노선결정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남산경관보호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문화의 보고인 경주남산을 성역화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불교계는 한국불교재가회의를 비롯한 불교계 32개 단체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경주통과 백지화추진위원회를 구성, 경주도심통과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4년여 동안 논쟁을 벌이며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입안단계부터 반영하지 못해 지역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정부부처간의 갈등도 야기시켜 국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도 지적된다. 급기야 지난 5월 이수성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경제개발의 논리가 아니라 역사·문화유산 보존의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고속철 노선관련 일지

- ▲92년 6월: 당시 교통부, 경주도심통과 및 남산경관노선 확정
- ▲92년 11월: 문체부, 경주통과 노선도면 교통부에 요청
- ▲93년 6월: 문화재위원회, 건천노선 채택 요청
- ▲95년 3월: 문화체육부, 건천노선 채택 요구
- ▲95년 6월: 건교부, 문체부에 노선변경 불가 통보
- ▲95년 9월1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총무원, 경주도심통과 반대 성명서 발표
- ▲95년 10월9일: 한국불교재가회의 등 불교계단체와 고고학회 등 102개 단체 경주통과 백지화추진위 발족
- ▲95년 10월18일: 추진위, 국민서명운동 및 홍보 전단 배포 등 반대운동 본격화
- ▲96년 3월11일: 추진위, 17만여명의 서명부를 첨부 청와대에 청원
- ▲96년 5월15일: 경주통과 반대 지식인 77인 선언 발표
- ▲96년 6월8일: 정부, 경주통과 제3노선 선정 방침 발표
- ▲96년 12월18일: 건교부, 화천리 노선 발표

시론

목적지 없이 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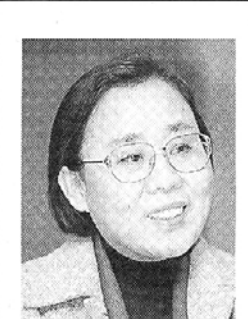
토끼가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가지위에 매달려 있던 열매가 떨어져 토끼 머리를 때렸다. 그러자 토끼는 뒤통이 자기를 해치려 하고 있다 생각하고 뛰기 시작하였다. 토끼가 뛰니까 옆에 있던 다람쥐는 영문도 모른채 따라 뛰고, 토끼 다람쥐가 뛰니까 너구리 곰 오소리 늑대도 덩달아 뛰고, 이들이 뛰니까 사슴 기린 호랑이 사자 할것없이 모든 짐승이 따라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들관에 있던 짐승들은 너나 할것없이 뛰고 또 뛰고 앞서지고 자빠지면서 뛰어갔다.

지구라는 들관위에 살고있는 2백여 개국의 종족들이 저마다 이 주문에 걸려들어 남보다 빨리 달려야 한다고 서로를 밀치고 제끼면서 뛰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 국민도 자신들이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 그렇게 숨가쁘게 뛰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

이렇게 모든 짐승들이 뛰다 그들은 서로 빨리 가야 한다는 압박관념에 쫓겨 서로를 밀치고 넘어진 짐승위를 밟고 뛰고... 그래서 마침내 이수리장을 이루고 말았다. 그때 지광선 글에서 계시던 부처님이 두손을 높이 쳐 드시고 "어서 멈춰라. 여긴 남떨어지다. 너희들은 어디를 가기위해 이렇게 숨가쁘게 뛰고 있는가? 너희들이 당도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고 물으셨다. 질문을 받은 짐승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앞서고 자빠지면서 뛰어왔지만 자신이 왜 뛰어왔는지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경쟁이란 힘되고 괴롭다. 긴장속에 갈라있어야 하고 무엇인가를 타도해야 한다는 압박관념속에 묶여있어야 하며 또 자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초조감속에서 불안해 해야 한다. 이것이 세계를 상대로한 무한경쟁으로 확대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달려가야 할 방향도 도달해야 할 목적지도 모른채 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세계의 주역이 되기 위해 정보의 바다를 헤엄쳐야 한다는 주문만 외우면서 달리고 있는 우리들, 이 미치광이 경주를 멈추게 해 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뛰는 짐승들을 보고 덩달아 뛰는 사슴이나 호랑이 사자는 아니었을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우리중 어느 누구도 "어서 멈추어라. 여기는 남떨어지다. 너희들은 어디를 가기 위해 이렇게 숨가쁘게 뛰고 있는가?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고 우렁차면서도 간절하게 외친 사람이 없었으니까.



남지심 (작가·우리는선우 공동대표)

"동포돕기 동참 복발가꿈시다"

불교계 민족공동체성금 모금 의의

부처님 당시 '탁발' 재현... 법회·바자회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지난 16일 발표한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모금운동은 국내의 절대빈곤자는 물론 북한과 중국동포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으로 종단이 북한동포를 돕기위해 앞장선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움직임은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펼쳐졌었다. 불교계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지난 12일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출범하면서 창구가 단일화되며 이어 이번에 조계종이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써 활기를 띠게 됐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모금운동은 연말

에만 진행되는 일회성행사가 아닌 지속사업으로 5월31일까지 계속된다. 먼저 2월말까지 중단산하 전국의 모든사에서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해 지난 여름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재민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다. 내년 2월 27일에는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모금대회를 전국 주요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성금의 50%는 북한동포, 탈북자, 중국동포를 위해 지원한다. 또한 총무원장을 비롯 간부스님들이 내년 1월25일 명동 서울역광장등 변화가에서 자선타발을 실시한다. '민족이 하나임을 깨닫는 동체대비 탁발'로 명명된 자선타발은 부처님 당

시 탁발행렬을 재현해 일년에 전통탁발의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 4월8일부터 9일까지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자선타발을 개최한다. 수익금을 전액 성금으로 사용한다. 조계종도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차원으로 기획한 '종합지로창구 개설' '연꽃장장기 운동' 등을 전개해 민족동임을 대비한 '통일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탁발'의 의미 탁발(托鉢)은 목숨을 발우에 기탁한다는 것으로 아مان과 아짐을 없애는 것이고 보시하는 이의 복덕을 길러주는 공덕이 있다. 탁발은 현재도 남방 불교권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이비승려의 피해를 막기위해 조계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단에서 금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범륜)는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북한의 식량난을 알리는 팸플릿을 배포하며 기구캠페인 및 모금운동을 실시했다.

慶 정 규 대 학 승 격 祝

한국불교의 희망, 한국의 나라다 대학!!

중앙승가대학교

대한불교 조계종단과 중앙승가대학의 오랜 숙원인 정규대학 승격이 지난 불기 2540년 12월 11일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는 정규대학 승격을 계기로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하여 21세기 사회를 선도하고 한국불교중흥을 이끌어 갈 선지식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기 2540. 12. 11

- ◆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송월주
- ◆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방지하
- ◆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 회장 신무상
- ◆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 ◆ 봉은사·개운사
-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소쩍새마을)

정규 대학 승격 중앙승가대학교